

# 2026년 3월 경매시장 동향



(사)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  
Korea Auto Auction Association

## 2026년 3월 자동차 경매시장 개요

지난 보고서들을 통해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 규모와 경매 출품 비중 간의 관계, 그리고 출품 물량과 낙찰률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매시장이 중고차 전체 시장의 성장세를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출품 물량의 확대가 반드시 거래 효율성의 개선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구조적 한계 역시 노출된 바 있다.

이번 3월 보고서에서는 기존 분석 모델에 최신 경매 출품 및 낙찰 데이터를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단순한 상관관계의 재확인을 넘어 경매시장의 내부 구조와 역할 변화에 초점을 맞춘 심층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지난달 분석에서 경매 낙찰 물량의 상당 비중이 수출 목적 거래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된 만큼, 국내 매매상품용 거래와 경매 출품 간의 연계 구조를 바탕으로 최근 물량 변동의 성격을 보다 정밀하게 규명하고자 하였다.

즉, 최근 관찰되는 낙찰 대수의 변동이 국내 유통 수요의 실질적인 회복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출 수요에 의해 지지되는 결과인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이 단순한 수치 해석을 넘어 경매시장의 기초 체력과 역할 변화를 진단하고 향후 시장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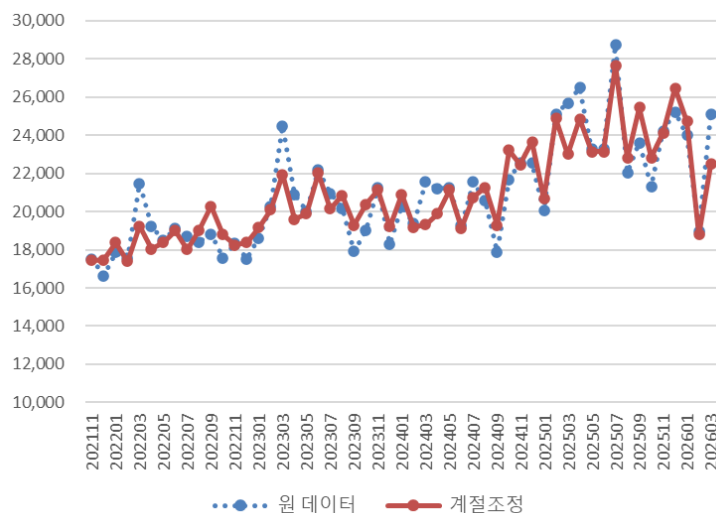
에 대한 선제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는바, 이러한 연속적 관찰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6년 3월 경매 출품 대수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매매상품용 이전거래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가 전월 대비 29.9% 급증함에 따라, 경매 출품 대수 또한 44.3% 폭증하였다. 이는 경매 시장이 단기적인 중고차 거래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수치 변화의 이면에서 어떠한 구조적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수집 가능한 데이터를 기초로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 1. 경매 낙찰 대수 추세

<그림 1>은 2021년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월별 경매 낙찰 대수를 원데이터와 계절 조정 수치로 대비하여 제시한다. 2026년 3월 경매 시장의 낙찰 대수는 원데이터 기준 25,104대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3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적 요인을 배제한 계절 조정 낙찰 대수는 22,478대로, 전월 대비 19.6% 증가하였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원데이터와 계절 조정치 모두 2.28%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계절적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란 전쟁 등 외부 지정학적 요인의 영향이 시장에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림 1> 경매낙찰 월별 추세



출처: 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국토교통부/TS(교통안전공단)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매시장의 구조적 기초 체력은 지난 수년간 뚜렷한 강화 추세를 보여왔다. 계절 조정 기준 낙찰 대수는 2022년 이후 단계적으로 상승해 왔으며, 특히 2025년에 진입하며 과거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인 평행궤도를 형성하였다. 2026년 2월의 급격한 거래 감소와 2월 말 발발한 이란 전쟁이라는 대외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3월 들어 다시 반등에 성공한 점은 시장의 복원력이 상당히 견고함을 뒷받침한다.

주목할 점은 최근 계절 조정 기준의 월별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경매시장의 역할이 단순한 거래 채널을 넘어, 국내 중고차 유통량의 변화와 수출 수요의 변동성을 흡수하고 완화하는 '시장 조정 장치(Buffer)'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단기적인 낙찰 대수의 증감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경매시장이 어떠한 성격의 수요를 흡수하며 시장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구조적 이해다. 이러한 관점은 향후 수출 여건 및 국내 유통 환경의 변화가 경매시장의 변동성으로 어떻게 전이될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이란 전쟁이 중고차 수출 및 이와 연동된 경매 낙찰 거래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 2. 경매 출품 대수로 본 시장 유입 압력

지난 수개월간의 보고서를 통해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 대비 경매 출품 비중이 상승할수록 낙찰률은 하락하는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가 관찰됨을 제시하였다. 이는 출품 물량의 양적 팽창이 곧바로 낙찰 확대라는 질적 성과로 직결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 이면에는 경매 시장으로 유입되는 차량의 품질 불균형 문제 혹은 경매 참여 업체들의 실질적인 매입 및 판매 소화 능력(판매력)의 임계치 도달 등 구조적 제약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번 달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한 단계 확장하여, 경매 출품 대수와 그 근원적 동인인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 간의 역학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도입된, 경매 출품 대수의 상대적 강도를 나타내는 '출품 압력 지표'와 출품 물량이 실제 성사로 이어지는 경로를 설명하는 '전환 효율 지표'를 중점 분석하였다.

다만, 본 지표들은 이번 보고서에서 최초로 제안되는 단계이므로 개별 수치의 단기적 등락에

매물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향후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과 통계적 보정을 통해 노이즈를 제거함으로써, 시장의 수급 상황을 진단하는 공식 지표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 2-1. 출품 압력 지표

경매 시장에 유입되는 차량 공급량은 근본적으로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 규모에 종속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를 경매 시장의 유입 압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매 출품 대수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림 2>는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 대비 경매 출품 비중을 통해 시장 유입 압력을 시각화한 결과다. <그림 2> 상단 패널의 스캐터플롯 분석에 따르면,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75.4% (결정계수 57%)로 매우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회귀분석 결과,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가 100대 증가할 때마다 경매 출품 대수는 약 39대 증가하는 선형적 흐름이 관찰되었다.

이는 최근 경매 시장이 매매상품용 중고차 시장의 변동에 더욱 밀접하게 동기화되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의 출품 압력을 지속적으로 흡수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특히 2월 데이터 기준의 결정계수(51%) 대비 이번 달에는 6%p의 상승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매매상품용 거래와 경매 출품 간의 연계성이 이전보다 한층 긴밀해졌음을 시사한다.

분석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 추세에서 현저히 벗어난 2022년 12월과 2023년 1월 데이터는 이상치(Outlier)로 판단하여 제외하였으며, 회귀 모델의 F값과 p-value는 모두 1%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을 고려하여 상세한 수리적 논의는 생략하였으나, 도출된 통계적 유의성은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뒷받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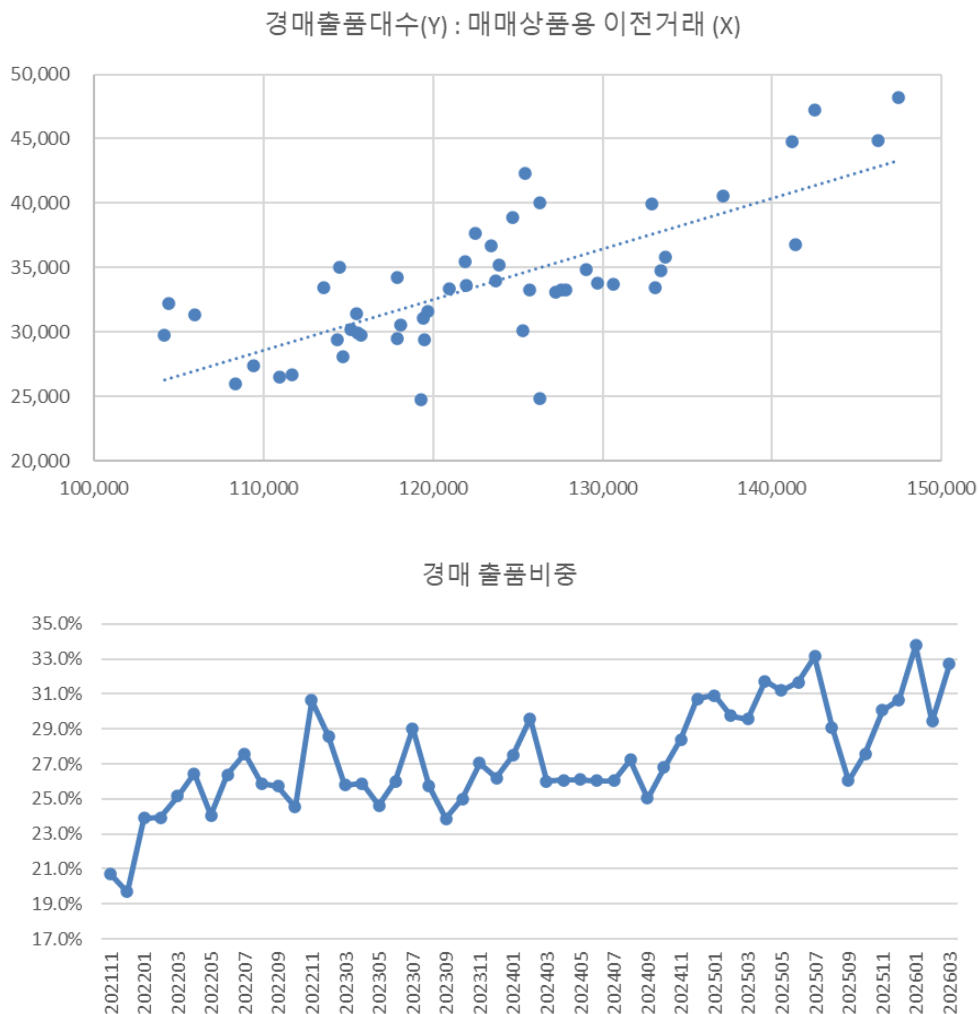
$$\text{경매출품대수} = -14,679 + 0.3936 \times (\text{매매상품용 이전거래대수}), \quad R^2 = 0.57$$

<그림 2>의 하단 패널은 월별 경매 출품 비중의 시계열 추이를 보여준다. 2021년 말 기준 20% 내외에 머물렀던 경매 출품 비중은 2022년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5%를 상회하는 수준이 일반화되었으며, 2024년 하반기부터는 30% 내외의 높은 비중이 반복적으로 관찰되

고 있다.

특히 2025년 들어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 규모가 확대되는 국면에서 경매 출품 대수는 시장 성장세를 상회하는 속도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출품 비중이 30%를 돌파하는 구간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국내 도매 유통 물량 중 경매 시장으로 유입되는 비중이 과거 대비 구조적으로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중고차 유통 생태계 내에서 경매 시장이 담당하는 역할과 비중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 매매상품용 이전거래와 경매 출품 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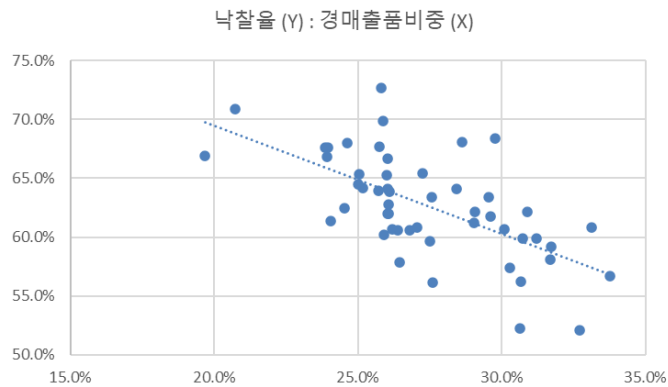


출처: 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국토교통부/TS(교통안전공단)

## 2-2. 전환 효율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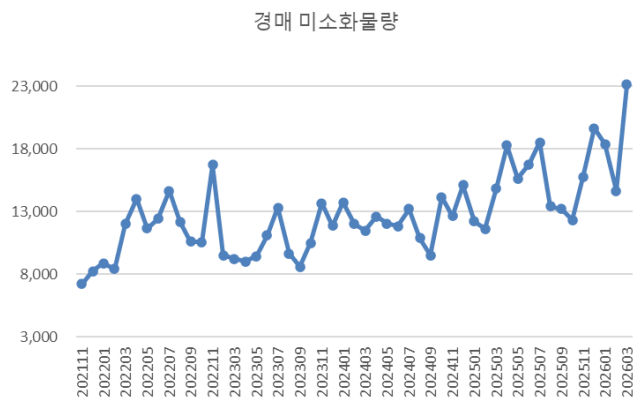
경매 시장으로 유입된 출품 차량들이 실제 낙찰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는 시장의 질적 성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본 보고서는 '경매 출품 비중'과 '낙찰율' 간의 역학 관계를 '경매 시장의 전환 효율'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유입된 물량이 실제 거래로 소화되는 실무적 역량을 점검하고자 한다. 다만, 본 절에서는 해당 지표를 최초로 도입하여 적용하는 단계인 만큼, 개별 수치에 대한 엄밀한 정량적 해석보다는 전반적인 추세와 구조적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3> 경매출품비중 (X축)과 경매낙찰율(Y축) 스캐터플롯



출처: 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국토교통부/TS(교통안전공단)

<그림 4> 월별 경매 미소화 물량 추세



출처: 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국토교통부/TS(교통안전공단)

<그림 3>은 경매 출품 비중(X축)과 경매 낙찰률(Y축)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스캐터플롯이다. 분석 결과, 경매 출품 비중이 상승할수록 낙찰률이 하락하는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앞서 <그림 2>를 통해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 증가가 경매 출품 확대로 이어지는 명확한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했으나, 이러한 물량의 확대가 낙찰율 상승으로 직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낙찰 효율 저하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단순히 유입 물량의 절대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기보다, 현행 경매 구조 내에서 출품 차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참여자들의 매입 및 판매 역량, 즉 오퍼레이션(Operation) 측면의 제약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경매 출품 비중이 낙찰율을 설명하는 결정계수가 약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낙찰율이 출품 비중 외에도 다양한 변수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낮은 결정계수가 두 변수 간의 음의 상관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출품 비중 확대가 낙찰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통계적 경향성은 명확히 존재하나, 그 변동을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므로 향후 다각적인 요인을 포함한 심층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는 경매 출품 대수 중 낙찰로 연결되지 못한 미소화 물량의 추이를 나타낸다. 경매 미소화 물량은 2021년 약 8천 대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6년 3월에는 23,118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이러한 미소화 물량의 급증은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으나, 출품 압력이 구조적으로 높아진 환경에서 경매 시장의 전환 효율이 이를 뒷받침할 만큼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양적 팽창에 걸맞은 질적 소화 능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누적되는 미소화 물량이 향후 시장 전반의 재고 부담과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2-2. 수출 말소와 낙찰대수

경매 시장에서 낙찰되는 물량의 상당 비중은 수출 목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그림 5>는 수출 말소 대수와 경매 낙찰 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스캐터플롯이다. 일반적으로는 낙찰 이후 수출 말소가 진행되는 것이 순차적인 흐름이나, 실제 시장에서는 수출 수요처를 사전에 확보한 상태에서 경매 낙찰이 이루어지는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본 분석에서는 수출 말소 대수를 독립변수(X)로, 경매 낙찰 대수를 종속변수(Y)로 설정하였다.

<그림 5>에서 확인되듯, 두 변수 간에는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된다. 회귀 분석 결과, 수출 말소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매 낙찰 대수 역시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정계수는 지난 2월과 동일한 0.68을 기록하며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유지하였다. 이는 최근 경매 시장에서 형성되는 낙찰 물량의 상당 부분이 수출 수요에 의해 강력하게 지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경매 낙찰 대수의 양적 변동은 국내 중고차 유통 여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향후 경매 시장의 성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국내 수요 분석과 더불어 글로벌 수출 시장의 동향을 통합적으로 살피는 안목이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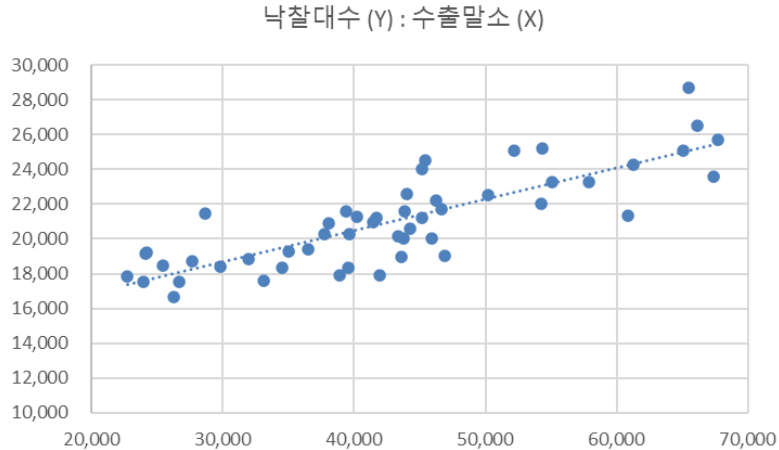
$$\text{경매낙찰대수} = 13,289 + 0.1800 \times \text{수출말소대수}, \quad R^2 = 0.68$$

종합하면, 현재 경매시장은 중고차 시장 전반의 거래 흐름과 강력한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낙찰을 견인하는 핵심 메커니즘은 수출 말소 수요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경매업체들이 수출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나, 동시에 국내 유통 및 소매 채널과의 연결 고리는 여전히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시사한다.

향후 경매시장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출 중심 수요 구조를 공고히 유지하는 한편, 낙찰 수요의 기반을 국내 유통 및 다양한 비즈니스 섹터로 다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특히 출품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낙찰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요처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각 채널별 특성에 맞춘 정교한 매칭 전략이 병행되어

야 할 것이다.

<그림 5> 수출말소 대수와 경매 낙찰대수 스캐터플롯



출처: 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국토교통부/TS(교통안전공단)

### 3. 요약 및 시사점

2026년 3월 경매시장은 매매상품용 거래 급증에 힘입어 출품과 낙찰 대수 모두 전월 대비 큰 폭의 반등을 기록하며 견고한 복원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양적 팽창 이면에서는 출품 압력 가중과 전환 효율 정체라는 구조적 모순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 관찰된다.

먼저 매매상품용 거래와 경매 출품 간의 결속력이 한층 강화되며 '출품 압력'이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가 100대 증가할 때 경매 출품이 약 39대 증가하는 선형적 관계가 공고해졌으며, 결정계수 또한 지난달 대비 6%p 상승한 57%를 기록했다. 이는 경매시장이 국내 도매 물량을 흡수하는 핵심 채널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음을 의미하나, 동시에 시장 유입 압력이 과거보다 구조적으로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또한 출품 확대가 낙찰 효율로 직결되지 못하는 '전환 효율의 병목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출품 비중이 높아질수록 낙찰률이 하락하는 음(-)의 상관관계가 재확인되었으며, 그 결과 미소화 물량은 23,118대라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경매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매입 및 판매 소화 능력이 급증하는 물량 유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오퍼레이션 측면의

제약이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경매 낙찰의 핵심 동력은 여전히 '수출 수요'에 강력하게 의존하고 있는 모습이다. 수출 말소 대수와 경매 낙찰대수 간의 결정계수가 0.68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경매시장의 실질적인 체력이 국내 소매 유통보다는 글로벌 수요에 의해 지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이란 전쟁과 같은 외부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매시장의 변동성으로 직접 전이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한다.

종합하자면 현재 경매시장은 거래 규모의 외연은 확장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미소화 물량 누적과 수출 수요 편중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향후 경매시장이 단순한 물량 적체 장소가 아닌 효율적인 유통 거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유입되는 물량을 질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참여자 구조의 고도화와 국내외 수요 채널의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수출 경기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유통 수요와의 연결 고리를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매칭 시스템을 통해 전환 효율을 개선하는 전략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사)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 산하

한국중고차유통연구소

<b>연구소장</b>	<b>부소장</b> (운영총괄)	<b>책임연구원</b> (수원대/경영학부)
<u>조 성봉</u>	<u>김 원태</u>	<u>고 석빈 교수</u>

이 분석 보고서 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전화 상담은 불가하며 홈페이지에 [문의하기] 또는 이메일 [info@aaa-korea.com](mailto:info@aaa-korea.com)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